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이 성장단계별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일번 (국립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협동과정 박사과정)*

천동필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진수 (국립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협동과정 교수)***

국문 요약

본 연구는 벤처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지속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이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성장단계별로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인 혁신역량은 창업자특성, 기술개발역량, 마케팅역량, 외부협력으로 구성하였고, 하위변수로 창업자특성은 최종학력, 산업실무경험으로, 기술개발역량은 연구개발인력, 특허권보유로, 마케팅역량은 자체브랜드보유, 마케팅역량수준으로, 외부협력은 정책자금활용과 외부기관 협업활동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매출액과 장기성장전망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2022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자료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기술통계량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창업자특성의 최종학력은 성장단계가 높아질수록 부정적 영향력이 감소하였고, 산업실무경험이 풍부한 창업자의 장기성장전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역량 변수인 연구개발인력은 창업기에는 부정적 요인이었으나 기술개발역량이 축적되면서 긍정적 요인으로 변화하였다. 마케팅역량수준은 모든 성장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외부협업활동은 매출액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었으나, 장기성장전망에 대한 창업기, 성장기의 가설은 채택되었으며, 이것은 벤처기업의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내부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외부협업활동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주제어: 벤처기업, 매출액, 장기성장전망, 혁신역량, 성장단계, 회귀분석

1. 서론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벤처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창조적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을 사업화하는 벤처기업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고용 확대에 크게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생존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33.8%로 발표되었다(연합뉴스, 2023.10.3.자). 이는 창업기업 세 개 중 두 개 기업은 5년 이내에 도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 초기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벗어나지 못해 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단계를 넘어서는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로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Cardullo, 1999). 벤처기업이 창업 이후 성공적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혁신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에 대비한다면, 벤처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 무사히 성장해 나가기 위한 혁신역량이 성장단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벤처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역량에 관한 연구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벤처기업은 기존 기업과 달리 성장이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Buederal et al., 1992). 벤처기업의 성장은 곧 생존력 확보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Freeman et al., 1983).

Sandberg(1986)는 벤처기업의 성과를 견인하는 요인은 기업가 특성, 산업구조, 전략의 기능이라 하였으며, Chrisman et al.(1988)은 자원, 조직구조,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포함하여 개념을 확장했다. 그리고 Gilbert et al.(2006)은 벤처기업 성장요인으로 기업가특성, 자원, 전략 그리고 산업구조 및 시스템을 포함하였다.

벤처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역량에 관한 연구는 창업자특성, 혁신역량, 경영전략, 외부협력에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이상무·문병준, 2020; 최종열, 2015).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제시된 혁신역량 중 일부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종열(2015)은 기업가정신, 혁신역량, 외부협력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박상문 외(2021)는 창업자특성, 관련산업경험, 창업팀특성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안문형(2022)은 기술사업화역량, 경쟁전략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 혁신

* 제1저자, 국립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협동과정 박사과정, ilbeon.kim@gmail.com

** 공동저자,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performance@pknu.ac.kr

*** 교신저자, 국립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협동과정 교수, js8929@pknu.ac.kr

· 투고일: 2024-06-15 · 수정일: 2024-08-07 · 게재확정일: 2024-08-17

역량을 대상으로 하는 점과 성장단계별로 혁신역량의 차이를 분석하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벤처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역량의 세부 요인으로 창업자특성, 기술개발역량, 마케팅역량과 외부 협력으로 구분하여 전반적 혁신역량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 혁신역량이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성장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2022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의 원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연구방법론으로는 빈도분석, 기술통계량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행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혁신역량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고,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에 관해 설명하고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연구모형에 따른 분석을 실행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의 의미와 시사점, 그리고 연구의 한계 등을 제시하였다.

II. 선행연구

2.1. 벤처기업 혁신역량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이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자원기반이론에 근거한 내부역량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Barney, 1991; Wernerfelt, 1984).

벤처기업의 경우는 소규모 기업이 갖는 자원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며,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협력을 통해 외부자원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Cohen & Levinthal, 1990).

따라서, 벤처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역량에 관한 연구는 창업자특성(Sandberg & Hofer, 1987), 자원적 요소, 전략적 요소(Sandberg & Hofer, 1987; Chandler & Hanks, 1994) 및 외부협력으로 정리할 수 있다.

2.2. 벤처기업의 성장단계

모든 자연계의 생명체가 그렇듯 벤처기업 역시 단계별 과정을 거쳐 성장하며, 성장단계별로 취해야 하는 전략과 경영활동에도 차이가 있다(김정호·한정희, 2014).

성장단계에 관한 연구는 성장단계의 구분에서 시작하는데 연구자의 자의적 구분이 문제 될 수 있다. 일부 계량적 지표를 도입하기도 하지만 단계별 특징이 비슷하다라도 모든 기업이 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문제가 된다(박다인·박찬희, 2018).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장단계는 3

단계에서 7단계까지 구분하며, 주로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소멸기의 4단계로 구분한다(Kazanjan & Drazin, 1989).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 5단계 구분은 각 단계의 의미를 파악하고 어떤 단계에 있는지 기업 스스로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개념과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개념 및 현황

성장단계	개념
창업기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준비하는 단계
초기성장기	제품 및 서비스가 출시되어 매출이 처음 발생하는 단계
고도성장기	제품 및 시장이 확대되고 매출이 급증하는 단계
성숙기	고성장기를 지나고 성장이 안정되는 단계
쇠퇴기	기업활동이 정체되거나 철수가 고려되는 단계

주) 중소벤처기업부(2022), 2022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와 초기성장기를 창업기에 포함하고, 고도성장기는 성장기로, 성숙기는 성숙기로, 쇠퇴기는 제외하고,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의 성장 3단계로 조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와 같이 성장 3단계의 조정은 선행연구에서도 이미 여러 번 실시된 바 있다(김정호·한정희, 2014; 천동필·우정원, 2020).

2.3. 선행연구의 고찰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혁신역량에 관한 연구는 주로 창업자특성, 내부역량, 외부협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성장단계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혁신역량에 관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관련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김정호·한정희(2014)는 CEO의 특성이 벤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CEO의 연구개발 위주의 경력보다 일반업무 중심의 경력을 가진 경우 성장률이 더 높았다. 그리고, 벤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조직의 성장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창업기와 초기성장기는 제품의 마케팅 강조 전략과 CEO의 일반경영 중심 업무경력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성숙기 및 정제기에는 기업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부정적이거나 유의하지 않았다.

동 연구에서 기업의 성장단계는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5단계 분류를 적용하면서 표본의 수를 고려하여 초기, 중기, 후기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초기는 창업기와 초기성장기를, 중기는 고도성장기를, 후기는 성숙기와 쇠퇴기를 포함하여 조정하였다.

그리고 조직수명주기(성장)단계를 조절변수로 적용하여 설명

변수와 조절변수간 상호작용항을 이용하는 방법과 조절변수의 값에 따라 표본을 구분하여 독립변수인 제품전략과 CEO 특성의 효과에 관하여 각 표본별로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호·한정희(2014)의 연구방법을 참조하여 성장단계별로 표본을 구분하고 각 독립변수의 효과를 비교하는 후자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윤형보 외(2018)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분석결과 창업자의 전문성과 공평한 인사정책, 공식적 네트워크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성장기업과 일반기업의 차이를 분석하여 경영진 경험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기업보다 고성장기업의 경우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 논문은 1단계 회귀분석을 통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을 파악하고, 대상기업을 고성장기업군과 일반기업군으로 구분하여, 각각 핵심 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2단계 회귀분석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 논문의 연구방법을 참조하여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차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김윤정 외(2018)는 벤처기업의 내부역량 요인과 성장단계에 대한 정부지원금 정책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분석결과 벤처기업의 성장단계 중 고성장 단계에서 정부지원금 활용에 대한 조절효과가 있었다. 이 논문은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를 조절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지원금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점이 눈에 띈다.

박다인·박찬희(2018)는 벤처기업의 외부협력과 벤처기업 지원제도 활용 정도가 기업의 경쟁력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성장단계(수명주기)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장단계별로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경쟁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계기가 된 논문 중 하나이다.

이영훈·송유진(2019)은 자원기반이론에 기초하여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정책자금수혜 경험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자금 수혜 경험은 벤처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비재무성과에는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성장단계별로 내부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동필·우청원(2020)은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CSR 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창업단계에서 CSR 활동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고도성장기부터 적극적인 CSR 활동을 수행한 기업의 경영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장단계별로 CSR 활동의 영향이 다름을 보여주었다.

안문형(2022)은 기술사업화역량 및 경쟁전략이 벤처기업의 성장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단기성과에 집중되는 연구를 장기성장전망으로 시각을 넓힌 연구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장기성장전망을 종속변수로 채택하게 된 계기가 된 논문이었다.

2.4. 연구가설의 설정

본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혁신역량과 기업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설을 설정하려고 한다. 먼저, 혁신역량의 핵심 구성요소인 창업자특성, 기술개발역량, 마케팅역량, 외부협력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매출액과 장기성장전망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2.4.1 창업자특성

창업자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을 변수로 하는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허수연 외, 2018; 한규동, 2019), 다른 한편으로는 창업자의 최종학력, 산업계 경험, 과거 창업경험 등의 창업자특성에 관한 연구가 있다(박상문 외, 2021). 본 연구에서는 박상문 외(2021)의 연구를 참조하여 창업자특성의 측정변수로 창업자의 최종학력, 산업 실무경험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창업자특성에 관한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다.

H1: 창업자특성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최종학력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산업실무경험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2 기술개발역량

기술개발역량은 벤처기업의 핵심역량으로 연구개발과 학습역량은 기술혁신역량의 중심을 이룬다(설동철·박철우, 2020). 그리고, 기업이 창업 후 단계별 성장을 위해서는 창업 초기부터 전략적 기술개발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정찬우·이원일, 2021).

기술개발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변수로 R&D 투자나 R&D 인력을 많이 사용한다(조대식·최경현,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인력과 R&D의 성과인 특허권보유를 하위변수로 설정하였다. 기술개발역량에 관한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다.

H2: 기술개발역량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연구개발인력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특허권보유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3 마케팅역량

벤처기업의 마케팅역량은 고객의 욕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혁신역량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최종열, 2015; 조대식·최경현, 2020).

본 연구에서는 마케팅역량의 하위변수로 자체브랜드보유와 마케팅역량 수준을 사용하였다. 자체브랜드보유는 마케팅 활동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며, 마케팅역량수준은 정성적 방법인 설문조사로 파악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마케팅역량 측정변수로 자체브랜드보유, 마케팅역량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마케팅역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 H3: 마케팅역량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자체브랜드보유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마케팅역량수준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4 외부협력

외부협력은 벤처기업이 보유한 내부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외부협력 활동이 포함된다. 즉 네트워크역량이나(설동철·박철우, 2020), 외부지식을 통합하고 이를 내부역량으로 변환시키는 흡수역량(정상철·오세구, 2018) 역시 외부협력의 개념에 포함된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단계별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정찬우·이원일, 2021), 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의 경우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면, 외부와의 기술협력, 지식공유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희선·이종석, 2017).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외부협력의 측정변수로서 정책자금활용 경험과 외부기관 협업활동 경험을 하위변수로 선정하였다(박다인·박찬희, 2018; 이영훈·송유진, 2021). 따라서 외부협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 H4: 외부협력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1: 정책자금활용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협업활동경험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3.1. 표본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2022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자료의 데이터는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3,000개의 표본자료(모수 37,686개) 중 개인기업 270개와 소퇴기의 법인기업 39개를 제외한 총 2,691개 기업이며, 창업기 962개, 성장기 877개, 성숙기 852개 기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 자료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표 2>와 같다.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사용 변수	측정 방법	선행연구	
독립 변수	창업자특성	최종학력 산업실무경험	5단계로구분 경험연수	Barney(1991), Miller(1988), Yam et al.(2004), 김윤정 외(2018), 김형철(2011), 조대식·최경현(2020), 최종열(2015), 한규동(2019)
	기술개발 역량	연구개발인력 특허권보유	인원수 보유수	
	마케팅역량	자체브랜드보유 마케팅역량수준	보유여부 5점 척도	
	외부협력	정책자금활용 협업활동경험	활용 유무 경험 유무	
종속 변수	재무성과	매출액	LN매출액	김인수 외(2017), 안문형(2022)
	성장전망	장기성장전망	5점 척도	
통제 변수	소재지 업력 업종 총직원수	수도권 여부 경과년수 제조업 여부 인원수	김인성·김원배(2015), 김정화·전지술 외(2010)	

주) 변수의 측정기준은 2021년말 기준

창업자특성 변수 중 최종학력은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고졸 이하, 전문학사, 대졸, 석사, 박사의 5단계로 측정하였고, 산업실무경험은 창업 당시 창업자의 관련된 산업분야 실무경험 연수로 측정하였다. 기술개발역량 변수인 연구개발인력은 연구개발인력의 인원수로 측정하였고, 특허권보유는 보유 건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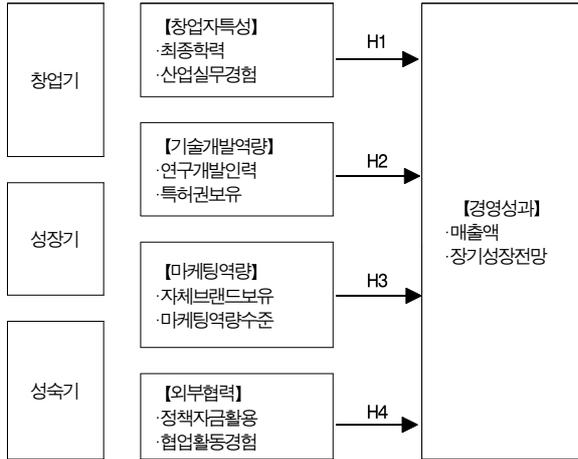
마케팅역량 변수인 자체브랜드보유는 자체브랜드 보유 여부로 측정하였고 마케팅역량 수준은 마케팅역량, 브랜드역량, 시장기회분석역량의 수준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결과이다. 외부협력은 정책자금활용과 외부기관 협업활동 경험의 유무로 측정하였다. 정책자금활용은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R&D자금, 정책자금의 융자, 보증서대출, 기타 사업화 및 수출지원자금 중 하나의 활용 경험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외부기관 협업활동의 경험은 기술개발, 경영지원 등의 협력 활동을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 협업 활동 경험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경영성과는 단기 재무성과인 매출액과 장기성장전망으로 측정하였다. 재무성과는 2021년도 매출액을 사용하였으며 금액의 차이가 커 로그함수를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장기성장전망은 성장전망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며, 설문조사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끝으로, 본 분석대상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한 통제변수는 소재지와 업력, 업종 그리고 총직원수를 사용하였다. 소재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이며, 업력은 설립일로부터의 경과 연수이며, 업종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구분이다. 총직원 수는 2021년 말 현재 총직원의 인원수이다.

3.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로 구분된 표본을 대상으로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독립변수인 혁신역량은 창업자특성, 기술개발역량, 마케팅역량, 외부협력으로 구성하고, 종속변수인 경영성과는 매출액과 장기성장전망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IV. 분석결과

4.1. 빈도분석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빈도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벤처기업의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가 창업기 61.5%, 성장기 64.4%, 성숙기 56.6%로 나타나 수도권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업종은 보면, 비제조업 비율이 창업기 42.9%, 성장기 26.3%, 성숙기 26.2%로 나타나 창업기의 비제조업 비율이 확연히 높았다. 이것은 비제조업 창업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벤처기업의 특성상, 창의성과 혁신성을 갖춘 비제조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창업자의 최종학력은 석·박사 출신 비율이 창업기 29.5%, 성장기 22.7%, 성숙기 28.0%로 나타나 창업단계에 있는 기업의 최종학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석·박사 출신의 고학력 창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체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은 창업기 45.3%, 성장기 44.0%, 성숙기 40.6%로 나타났으며, 마케팅역량수준은 높음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이 창업기 32.3%, 성장기 38.4%, 성숙기 32.5%로 성장단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외부협력 변수인 정책자금활용은 창업기 53.2%, 성장기는 45.0%, 성숙기 48.9%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 벤처기업의 정책자금활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창업기의 자금조달이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기관 협업활동경험의 경우 창업기 36.6%가 협업활동의 경험이 있었으며, 성장기는 45.5%, 성숙기는 39.7%로 나타나 창업기 벤처기업의 외부기관 협업활동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장기성장전망의 경우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의 비율을 살펴보면, 창업기 벤처기업의 경우 74.5%였고, 성장기의 경우 77.8%, 성숙기의 경우 68.2%로 나타나 모든 성장단계에서 장기성장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표 3> 빈도분석

(단위: 업체수, %)

구분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소재지	수도권	592(61.5)	565(64.4)	482(56.6)
	비수도권	370(38.5)	312(35.6)	370(43.4)
업종	제조업	549(57.1)	646(73.7)	629(73.8)
	비제조업	413(42.9)	231(26.3)	223(26.2)
최종학력	고졸이하	46(4.8)	59(6.7)	69(8.1)
	전문학사	48(5.0)	49(5.6)	49(5.8)
	학사	584(60.7)	570(65.0)	495(58.1)
	석사	180(18.7)	128(14.6)	171(20.1)
	박사	104(10.8)	71(8.1)	68(7.9)
자체브랜드	있음	436(45.3)	386(44.0)	346(40.6)
	없음	526(54.7)	491(56.0)	506(59.4)
마케팅역량	매우낮음	7(0.7)	2(0.2)	6(0.7)
	낮음	121(12.6)	82(9.4)	58(6.8)
	보통	523(54.4)	456(52.0)	511(60.0)
	높음	248(25.8)	276(31.5)	249(29.2)
	매우높음	63(6.5)	61(6.9)	28(3.3)
정책자금활용	있음	512(53.2)	395(45.0)	417(48.9)
	없음	450(46.7)	482(55.0)	435(51.1)
협업활동경험	있음	352(36.6)	399(45.5)	338(39.7)
	없음	610(63.4)	478(54.5)	514(60.3)
장기성장전망	매우부정	2(0.2)	1(0.1)	2(0.2)
	부정적	12(1.3)	2(0.2)	15(1.8)
	보통	231(24.0)	192(21.9)	254(29.8)
	긍정적	557(57.9)	531(60.6)	520(61.0)
	매우긍정	160(16.6)	151(17.2)	61(7.2)

주) ()내는 성장단계별 업체수의 구성비임

4.2. 기술통계량분석

기술통계량 분석은 <표 4>와 같다. 업력을 보면, 창업기의 평균은 3.5년이며 최대 6년이다. 성장기는 최소 6년에서 최대 45년이었으며 평균은 12.8년이고, 성숙기는 최소 5년에서 최대 69년이었고 평균은 16.5년이었다. 창업기의 경우 성장기·성숙기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나, 성장기와 성숙기는 그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총직원 수의 평균은 창업기 20.9명, 성장기 42.6명, 성숙기 54.4명으로 성장단계별로 다소 큰 차이를 보였다. 산업실무경험의 평균은 창업기가 8.1년, 성장기 9.9년, 성숙기 8.3년으로 나타나 성장단계별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구개발인력의 평균은 창업기가 4.8명, 성장기 6.7명, 성숙기 7.3명으로 성장단계가 높아질수록 연구개발인력이 늘어났다. 특허권보유 수의 평균은 창업기 1.7개, 성장기 4.4개, 성숙기 6.9개로 나타나 성장단계가 높아질수록 특허권보유 건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단계별 매출액의 평균값은 창업기가 69억 원, 성장기 153억 원, 성숙기 191억 원으로 나타나 성장단계가 높아질수록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성장기의 매출액은 창업기의 2.2배로 나타났다.

<표 4> 기술통계량분석

구분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업력(년)	평균	3.5	12.8	16.5
	표준편차	1.6	5.5	7.8
	최소값	0	6	5
	최대값	6	45	69
총직원수(명)	평균	20.9	42.6	54.4
	표준편차	39.9	59.5	102.1
	최소값	1	1	1
	최대값	600	518	2,491
산업실무경험(년)	평균	8.1	9.9	8.3
	표준편차	8.3	8.5	8.4
	최소값	0	0	0
	최대값	40	42	40
연구개발인력(명)	평균	4.8	6.7	7.3
	표준편차	15.8	11.3	14.4
	최소값	0	0	0
	최대값	400	135	210
특허권보유(개)	평균	1.7	4.4	6.9
	표준편차	3.3	10.7	13.3
	최소값	0	0	0
	최대값	30	120	126
매출액(백만원)	평균	6,856	15,269	19,097
	표준편차	15,995	30,678	26,483
	최소값	0	0	3
	최대값	185,499	620,046	369,046

4.3. 상관관계분석

본 모형에서 사용한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각 변수 간의 상관계수와 유의확률의 정도를 살펴보면, 다소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들은 업력과 매출액(.441), 총직원수와 매출액(.386) 및 연구개발인력(.353)이다. 그리고, 마케팅역량수준과 장기성장전망(.385)도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반면, 창업자의 산업실무경험은 장기성장전망(.081)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그 외 다른 변수와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독립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0.5 이하의 수준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4.4. 다중회귀분석

4.4.1.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역량

본 모형은 혁신역량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성장단계별로 모델이 구성되었으며,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Durbin-Watson 지수가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이며, F값이 25 이상으로 회귀모형으로 적합하였다. VIF 지수는 모두 5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창업자특성 변수 중 최종학력은 창업기·성장기의 매출액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매출액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학력의 표준화계수(β)가 창업기(-.233), 성장기(-.098), 성숙기(-.047)로 성장단계가 높아질수록 부정적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실무경험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기술개발역량 변수인 연구개발인력은 창업기 매출액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고, 성숙기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연구개발인력의 표준화 계수(β)가 창업기(-.082), 성장기(.036), 성숙기(.154)로 성장단계가 높아질수록 부정적 요인이 긍정적 요인으로 변하였다. 특허권보유는 창업기·성장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성숙기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역량 변수 중 자체브랜드는 모든 성장단계에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마케팅역량수준은 모든 성장단계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협력 변수인 정책자금활용은 창업기·성장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성숙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업활동경험은 모든 단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통제변수 가운데 업종, 업력, 총직원 수는 모든 성장단계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Pearson 상관관계분석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업력	1							
② 총직원수	.254**	1						
③ 최종학력	-.77**	.046*	1					
④ 산업실무경험	.031	.002	-.104**	1				
⑤ 연구개발인력	.128**	.353**	.129**	.024	1			
⑥ 특허권 보유수	.267**	.165**	.078**	-.028	.170**	1		
⑦ 마케팅역량수준	.054**	.114**	-.012	.024	.075**	.080**	1	
⑧ Ln매출액	.441**	.386**	-.137**	.024	.195**	.188**	.115**	1
⑨ 장기성장전망	-.027	.046*	.065**	.081**	.048*	.080**	.385**	-.049*

주) * 상관계수는 0.05 수준에서 유의, ** 상관계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6>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역량

구분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β	t	p	β	t	p	β	t	p
창업자 특성	최종학력	-.233	-7.995	.000***	-.098	-3.365	.000***	-.047	-1.522	.128
	산업실무경험	-.018	-.605	.546	-.010	-.366	.714	-.025	-.821	.412
기술개발 역량	연구개발인력	-.082	-2.472	.014**	.036	1.010	.312	.154	4.944	.000***
	특허권보유	.033	1.111	.267	-.006	-1.189	.850	.122	3.999	.000***
마케팅 역량	자체브랜드보유	-.056	-1.910	.056*	-.101	-3.537	.000***	-.109	-3.584	.000***
	마케팅역량수준	.074	2.556	.011***	.076	2.670	.008***	.109	3.618	.000***
외부 협력	정책자금활용	.040	1.360	.174	.018	.647	.518	.074	2.509	.012**
	협업활동경험	-.029	-.972	.332	-.016	-.551	.581	.006	-.180	.857
통제 변수	소재지	.044	1.531	.126	.026	.911	.362	.005	.152	.880
	업종	.056	1.870	.062*	.062	2.168	.030**	.151	4.904	.000***
	업력	.237	8.203	.000***	.123	4.210	.000***	.206	6.673	.000***
	총직원수	.353	10.523	.000***	.510	14.988	.000***	.303	9.862	.000***
모형 요약		R(.490), R ² (.240), adj R ² (.231), F(25.031), Durbin-Watson(1.702)			R(.591), R ² (.330), adj R ² (.340), F(38.688), Durbin-Watson(1.544)			R(.532), R ² (.283), adj R ² (.273), F(27.584), Durbin-Watson(1.548)		

주) * p<0.1, ** p<0.05, *** p<0.01

Reference group : 정책자금활용=없음, 협업활동경험=없음, 소재지=비수도권, 업종=비제조업

<표 7> 장기성장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역량

구분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β	t	p	β	t	p	β	t	p
창업자 특성	최종학력	-.006	-.200	.841	.029	.976	.329	.160	4.803	.000***
	산업실무경험	.106	3.551	.000***	-.003	-.109	.913	.047	1.445	.149
기술개발 역량	연구개발인력	-.011	-.330	.742	-.104	-2.786	.005***	.030	.886	.376
	특허권보유	.019	.621	.535	.100	3.134	.002***	.018	.537	.591
마케팅 역량	자체브랜드보유	.091	3.034	.002***	.096	3.171	.002***	-.061	-1.857	.064*
	마케팅역량수준	.339	11.555	.000***	.431	14.351	.000***	.329	10.081	.000***
외부 협력	정책자금활용	.014	.479	.632	.048	1.612	.107	.072	2.253	.024**
	협업활동경험	.175	5.789	.000***	.159	5.141	.000***	.063	1.908	.057*
통제 변수	소재지	.022	.727	.467	.070	2.346	.019**	-.024	-.733	.464
	업종	.003	.112	.911	.010	.325	.745	-.090	-2.719	.007***
	업력	-.095	-3.227	.001***	.006	.194	.846	.067	2.009	.045**
	총직원수	.046	1.356	.175	.026	.719	.473	-.008	-.246	.806
모형 요약		R(.459), R ² (.211), adj R ² (.201), F(21.195), Durbin-Watson(1.871)			R(.520), R ² (.271), adj R ² (.261), F(26.750), Durbin-Watson(1.816)			R(.409), R ² (.167), adj R ² (.155), F(14.033), Durbin-Watson(1.827)		

주) * p<0.1, ** p<0.05, *** p<0.01

Reference group : 정책자금활용=없음, 협업활동경험=없음, 소재지=비수도권, 업종=비제조업

4.4.2. 장기성장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역량

본 모형은 혁신역량이 성장단계별로 장기성장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Durbin-Watson 지수가 자기상관없이 독립적이며, F값이 14 이상으로 회귀모형으로 적합하였다. VIF 지수는 5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창업자특성 변수 중 최종학력은 창업기·성장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성숙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실무경험은 창업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기술개발역량 변수인 연구개발인력은 창업기·성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성장기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연구개발인력의 표준화계수(β)를 보면 창업기·성장기에는 부정적 요인이었으나 성숙기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변화하였다.

특허권보유는 창업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성장기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역량은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이 축적되면서 긍정적 요인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케팅역량 변수 중 자체브랜드보유는 창업기·성장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체브랜드 보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마케팅역량수준은 모든 성장단계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마케팅역량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외부협력 변수인 정책자금활용은 창업기·성장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성숙기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업활동경험은 창업기·성장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협업활동경험의 표준화계수(β)를 보면 창업기(.175), 성장기(.158), 성숙기(.063)로 성장단계가 높아질수록 긍정적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이것은 벤처기업의 창업단계에서 외부기관과의 협업 활동이 더 필요하며, 성장단계가 높아질수록 그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통제변수 가운데 소재지와 업종은 장기성장전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고 업력은 창업기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성숙기에는 정(+)의 영향을 미쳤다. 총직원 수는 모든 단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업종, 업력, 총직원 수가 매출액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4.5.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모형에 대한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의 성장단계별 가설검정은 $p < 0.5$ 를 기준으로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였다. 가설검정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가설검정 결과

구분	연구가설	검정결과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창업자 특성	최종학력 → 매출액	채택(-)	채택(-)	기각
	최종학력 → 장기성장전망	기각	기각	채택(+)
	산업실무경력 → 매출액	기각	기각	기각
	산업실무경력 → 장기성장전망	채택(+)	기각	기각
기술 개발 역량	연구개발인력 → 매출액	채택(-)	기각	채택(+)
	연구개발인력 → 장기성장전망	기각	채택(-)	기각
	특허권보유 → 매출액	기각	기각	채택(+)
	특허권보유 → 장기성장전망	기각	채택(+)	기각
마케팅 역량	자체브랜드보유 → 매출액	기각	채택(-)	채택(-)
	자체브랜드보유 → 장기성장전망	채택(+)	채택(+)	기각
	마케팅역량수준 → 매출액	채택(+)	채택(+)	채택(+)
	마케팅역량수준 → 장기성장전망	채택(+)	채택(+)	채택(+)
외부 협력	정책자금활용 → 매출액	기각	기각	채택(+)
	정책자금활용 → 장기성장전망	기각	기각	채택(+)
	협업활동경험 → 매출액	기각	기각	기각
	협업활동경험 → 장기성장전망	채택(+)	채택(+)	기각

주) '채택(+)'는 유의한 정(+)의 영향, '채택(-)'는 유의한 부(-)의 영향

창업자특성 변수인 최종학력은 창업기·성장기의 매출액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성숙기에는 장기성장전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최종학력의 매출액에 대한 표준화 계수(β)는 창업기(-.233), 성장기(-.098), 성숙기(-.047)로 성장단계가 높아질수록 부정적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실무경험의 매출액에 대한 가설은 모든 성장단계에서 기각되었으나, 장기성장전망에 대한 가설은 창업기에 채택(+)되었다. 이것은 산업실무경험이 풍부한 창업자에 대한 장기성장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개발역량 변수인 연구개발인력은 매출액에 대하여 창업기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성숙기에는 정(+)의 영향을 미쳤다. 연구개발인력의 매출액에 대한 표준화 계수(β)가 창업기(-.082), 성장기(.036), 성숙기(.154)로 나타나, 창업기의 부정적 요인이 기술개발역량이 축적되면서 성장기부터 긍정적 요인으로 변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허권보유에 대한 가설은 창업기에는 모두 기각되었으나, 성장기의 장기성장전망에 대한 가설이 채택(+)되었고, 성숙기의 매출액에 대한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것은 기술개발역

량이 축적되어 가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설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창업기의 모든 가설이 기각된 것은 벤처기업의 특허권 취득이 창업단계에서 성장전략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케팅역량 변수인 자체브랜드보유는 매출액에 대하여 창업기의 가설은 기각되었고, 성장기·성숙기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반면, 장기성장전망에는 창업기·성장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마케팅역량수준은 매출액과 장기성장전망에서 창업기·성장기·성숙기 모든 성장단계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으로 가설이 채택되었다. 장기성장전망에 대한 표준화 계수(β)가 창업기(.339), 성장기(.431), 성숙기(.329)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벤처기업이 단계별 성장을 위해서는 창업단계에서부터 마케팅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외부협력 변수인 정책자금활용은 창업기·성장기의 모든 가설은 기각되었으며, 성숙기의 매출액과 장기성장전망에 대한 가설이 채택(+)되었다. 특히 창업기·성장기에 있는 벤처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정책자금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외부기관 협업활동은 단기 재무성과인 매출액에 대한 가설은 모두 기각되었으나, 장기성장전망에 대한 가설은 창업기·성장기에서 채택되었다. 벤처기업의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외부기관 협업 활동이 필요한 것임을 의미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이 성장단계별로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분석을 위해 ‘2022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자료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인 창업자특성, 기술개발역량, 마케팅역량, 외부협력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고, 기업 경영성과인 매출액과 장기성장전망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창업자특성의 하위변수로 창업자의 최종학력, 산업실무경험을 사용하였고, 기술개발역량은 연구개발인력, 특허권보유를 사용하였다. 마케팅역량은 자체브랜드보유, 마케팅역량수준을 하위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외부협력은 정책자금활용, 협업활동경험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한 의미는 아래와 같다.

첫째, 최종학력은 창업기에서 성장기로 성장단계가 높아질수록 부정적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며, 산업실무경험이 풍부한 창업자의 장기성장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력 창업자 또는 산업 실무경험이 풍부한 창업자에 대한 창업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성장단계별 빈도분석에서 창업기의 석·박사 비중이 높은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둘째, 기술개발역량 변수 중 연구개발인력은 매출액에 대하

여 창업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성숙기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하였다. 또한, 특허권보유는 창업기에 모든 가설이 기각되었으나, 성숙기(매출액) 가설과 성장기(장기성장전망) 가설은 채택(+)되었다.

창업기에는 기술개발역량이 축적되는 단계로서 경영성과가 발현되지 못하다가 성장기부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벤처기업이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개발인력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의 역량을 꾸준히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특허권보유가 창업기의 매출액과 장기성장전망에 대한 모든 가설이 기각된 것은 벤처기업 특허권 취득이 창업단계에서 성장전략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벤처기업의 특허전략은 기업 성장전략과 연계되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마케팅역량 변수 중 자체브랜드보유는 성장기·성숙기의 매출액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장기성장전망에 대하여는 창업기·성장기에 있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브랜드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B2C 거래에서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다. B2B 거래의 경우는 자체브랜드 보다 원청업체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2022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자료에 의하면 벤처기업의 B2B 거래비율이 71.6%이고, B2C 거래비율은 10.5%에 나타났다. 자체브랜드보유가 매출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낮은 B2C 거래 비중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자체브랜드를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마케팅역량수준은 매출액과 장기성장전망의 모든 성장단계에서 긍정적 가설이 채택(+)되었으며, 특히 장기성장전망에 대한 표준화계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마케팅역량수준은 장·단기의 모든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벤처기업이 창업 후 겪는 어려움 가운데 상당 부분은 마케팅에서 겪는 어려움일 것이다. 우수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시장에서 판매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품이 판매되기까지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창업단계에서부터 마케팅 방안을 모색하고 역량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외부협력 변수 중에서 정책자금활용은 매출액과 장기성장전망에 대한 창업기·성장기의 가설이 기각되었다. 벤처기업의 49.6%가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창업기·성장기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책자금활용이 경영성과를 견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자금의 지원이 단기적 어려움 해소에 활용되기보다 벤처기업이 성장단계별로 겪게 되는 구조적 어려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외부기관 협업활동은 매출액에 대한 가설은 모두 기각되었고, 장기성장전망에 대한 가설은 창업기·성장기에 채택되었다.

외부협업활동이 단기적으로 매출액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지만,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활동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규모 벤처기업의 경우, 내부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 협업활동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성장전략 수립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지만, 아래와 같은 일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본 분석은 법인기업 2,691개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일정 시점의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매년 성장하는 벤처기업의 특성을 일정 시점에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며 본 연구의 한계라 할 것이다.

둘째, 벤처기업 성장단계의 구분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분석대상 자료에서 제시된 성장단계의 구분은 설문조사를 통해 정성적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다. 성장단계별 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 구분 기준에 의해 성장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상기의 일부 한계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이 매출액과 장기성장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성장단계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벤처기업의 단계별 성장전략 수립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보다 동태적 관점에서 성장단계별 혁신역량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이 성장단계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사히 죽음의 계곡을 건너갈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

REFERENCE

김윤정·서윤교·홍정입(2018). 벤처기업의 내부역량과 성장단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부 지원자금 활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21(2), 636-662

김인성·김원배(2015). R&D 역량 및 내부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노비즈기업을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29(1), 95-122

김인수·유경식·김윤동(2017). 벤처기업의 기업가정신과 혁신활동이 기업 매출신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12), 329-341

김정호·한정희(2014). 제품전략과 CEO 특성이 벤처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차별화된 효과: 조직수명주기 단계의 조절 역할. *기술혁신연구*, 22(1), 23-58

김정화·전외술(2010). 기업내부역량이 기술혁신과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5(2), 23-44

김형철(2011). 벤처기업 내부역량과 경쟁전략 간의 적합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4(2), 769-787

박다인·박찬희(2018).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업경쟁력 및 기업성과 창출 전략. *벤처창업연구*, 13(6), 177-189

박상문·강신형·이종선(2021). 벤처기업의 인적자본 특성이 초기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개발연구*, 24(4), 143-161

설동철·박철우(2020). 기술혁신역량이 기업의 지식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 중소벤처기업 R&D 사업을 중

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4), 193-216

안문형(2022). 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역량과 경쟁전략이 성장전망에 미치는 영향: 비즈니스모델 혁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산업융합연구*, 20(8), 1-13

연합뉴스(2023.10.3.). *국내 창업기업 5년 후 생존율 34%..OECD 평균보다 한참 낮아*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

윤형보·김진수·이일환(2018). 기술창업기업의 기업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3(1), 118-144

이상무·문병준(2020). 기업 핵심역량 및 경쟁우위의 결정요인과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중소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경제연구*, 42(4), 75-102

이영훈·송유진(2019). 정부지원자금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내부역량의 매개효과와 기업 성장단계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2), 31-46

이영훈·송유진(2021). 첨단제조 벤처기업의 외부적 협력활동 경험 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내부 핵심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6(6), 69-84

이희선·이종석(2017). 기업의 핵심역량 영향관계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포괄적 연구. *경영과학*, 34(2), 35-56

정상철·오세구(2018). 기업의 조직문화, 흡수역량, 혁신능력과 관계: 첨단기술 벤처기업에 대한 실증연구. *산업혁신연구*, 34(3), 113-140

정찬우·이원일(2021).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단계별 성장요인: (주)나노신소재 사례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6(6), 85-105

조대식·최경현(2020). 창업기업의 혁신역량 영향요인 진단 연구. *벤처창업연구*, 15(5), 99-112

중소벤처기업부(2022). *2022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Retrieved from <https://www.mss.go.kr>.

천동필·우정원(2020). CSR 활동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성장단계를 구분하여. *벤처창업연구*, 15(1), 225-235

최종열(2015). 기업가정신, 혁신역량 및 외부협력 이 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5), 219-231

한규동(2019). 벤처기업 창업가의 특성과 경영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4(6), 29-43

허수연·김상덕·이명성(2018). 벤처기업의 기업가정신이 전략적 지향성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유통연구*, 23(3), 27-51

Barney, J.(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 99-120

Buederal, J., Preisendoerfer, P., & Ziegler, R.(1992). Survival chances of newly founded business organiz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7, 227-242

Cardullo, M. W.(1999). *Technological entrepreneurship: enterprise formation, financing and growth*. Research Studies Press

Chandler, G. N., & Hanks, S. H.(1994). Market attractiveness, resource-based capabilities, venture strategies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 331-349

Chrisman, J. J., Bauerschmidt, A., & Hofer, C. W.(1988). The determinants of new venture performance: An extended model.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23, 5-29

Cohen, W. M. & Levinthal, D. A.(1990). Absorptive capacity: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and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5(1), 128-152

Freeman, J., Carroll, G. R., & Hannan, M.T.(1983). The liability of newness: Age dependence in organizational death rat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692-710

- Gilbert, B. B., McDougall, P. P., & Audretsch, D. B.(2006). New venture growth: A review and extension. *Journal of Management*, 32(6), 926-950
- Kazanjian, R. K., & Drazin, R.(1989). An empirical test of a stage of growth progression model. *Management Science*, 35(12), 1489-1503
- Miller, D.(1988). Relating Porter's business strategies to environment and structur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1, 280-308
- Sandberg, W. R.(1986). *New venture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y and industry structure*.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Sandberg, W., & Hofer, C. W.(1987). Improving new venture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y, industry structure, and the entrepreneu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 5-28
- Wernerfelt, B.(1984). A resource-based view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5(2), 171-180
- Yam, R. C. M., Guan, J. C., Pun, K. F., & Tang, E. P. Y.(2004). An audi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ies in Chinese firm: Some empirical findings in Beijing. *Research Policy*, 33, 1123-1140

A Study on the Impact of Innovation Capabilities of Venture Companies on Business Performance by Growth Stages

Kim, Il-Beon*
Chun, Dong-Phil**
Lee, Jin-Soo***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venture companies' innovation capabilities on business performance by growth stage. Innovation capability, which is an independent variable, is composed of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technology development capabilities, marketing capabilities, and external cooperation. And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set as sales and long-term growth prospects.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2022 Precise Survey on Venture Companies' and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research methodolog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negative influence of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was found to decrease as the growth stage increased, and the long-term growth prospects of entrepreneurs with abundant industrial practical experience were perceived positively. Research and development personnel was a negative factor during the start-up period, but as the growth stage increased and technology accumulation occurred, it changed into a positive factor. Marketing competency level was found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all growth stages. For external collaboration activities, all hypotheses regarding sales were rejected, but hypotheses regarding the start-up and growth periods regarding long-term growth prospects were accepted. It is interpreted that external collaboration activities are necessar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internal resources.

KeyWords: venture company, sales, long-term growth prospects, innovation capability, growth stage, multiple regression.

* First Author, Ph 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Consulting Course i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ilbeon.kim@gmail.com

** Co-Autho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Technology i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erformance@pknu.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js8929@pknu.ac.kr